

| | | |
|----------------------------|---------------------|------------|
| 예배로의 부름 | | 인도: 김성진 집사 |
| 찬양 | | |
| *기도 | 주기도문 | 다 함께 |
| *찬송 |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618장) | 다 함께 |
| *교독문 | 74번 | 다 함께 |
| *찬송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251장) | 다 함께 |
| 기도 | | 김동진 형제 |
| 찬송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90장) | 다 함께 |
| 말씀 | | 고명환 목사 |
| -그리스도인의 삶 1: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생활 | | |
| *찬송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407장) | 다 함께 |
| 교회소식 | | 담당자 |
| 기도 | | 담당자 |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일(25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뜻 깊은 예식이 되도록 마음의 준비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47-3편, 빌립보서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밀알의 사랑

나 때문에 주님을 팔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나를 거절한 이곳. 사실은 여기에 가장 값진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오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어둠에 잠긴 이가 그 얼마인지요! 다음에 이런 저런 섬김에 앞서서 주님은 나를 철저히 거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굳게 선택한 이 밀알의 사랑을 그 얼마나 원하시는지!

자신의 뜻과 원함이 이루어지고 자기 길이 형통함으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해도 결코 이 한 알의 밀알의 썩어짐의 사랑의 그 길과 그 도에 있어서 결코 비교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한 알의 밀알의 죽음과 사랑 외에도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의 온전된 사랑의 길이 있었다면 벌써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속의 길, 새사람의 길 없듯이 나를 철저히 잃는 이길 이외에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을 이 사랑의 순수함과 온전함 속에서 나를 그의 것으로 온전히 얻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돕는 자로 함께 하심을 우린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풍성한 열매가 이 길로 인함이었고 진정한 그의 사람들이 점검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이끌려 그의 돕는 자로 간 길이 모두 이 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 같은 자신 때문에 그 고마우신 그 귀하신 내 주님을 잃다니요! 그리고는 정말 무익하게도 거저 한 알로만 늘 살아가다니요!

참 사랑, 곧 순수하고도 진정한 사랑은 나 중심이기보다는 나를 잃음에 있으며, 거기서 주님은 내 온 가슴에 남김 없는 내 전부가 될 것이며, 우린 비록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벌써 상한 이웃을 위로할 만큼 그의 얼굴로, 그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의 마음의 넘침으로, 우린 행복해 있을 것입니다.

3월의 기도

최옥희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큰 빛을 보았다고
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얕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감사가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 주님께 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엿도다 하였느니라” (마 4:15~16)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이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양으로

김은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몸부림쳤던 나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 14:21)

이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상쾌하고
시원케 해 주었습니다.
진정 해답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됨을 알았습니다.

기도 속에 온 땅을
때론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위해
공휼과 은혜를 구하다 보면
가슴 구석에 남아 울부짖게 되는 곳.

높이 솟은 산 밑
신작로 길 따라 넓게 펼쳐지는 냇가,
줄지어 피어오르던 버들강아지,
앞산과 뒷산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든 가운데
자리 잡은 한 채 한 채의 집들,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일생에 매여 사는 많은 이들.

끌어안고 탄식하듯이 간구하옵나니
하늘 바람,
은혜의 바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이
비취지고 드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전부 삼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빠 있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님만의 양으로 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3월 18일(11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